

갈라지는 뱀살·닭살 NO!... 월동 준비 마무리는 '보습'

겨울 보습아이템 출시 잇따라
 풋크림·립글로우도 보습 ↑
 소량 사용, 고보습 제품 인기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부 보습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습 바이블'로 불리는 베스트셀러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신제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스킨케어부터 핸드크림까지...신제품 '뽀뽀'

환절기에는 기온 차가 커 피부 속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쉽다. 피부 각질층이 약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화장품 업계는 지난달부터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라네즈, 아이오펜, 뉴트로지나 등이 '고보습'을 강조한 신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라네즈의 '크림 스킨'.

라네즈는 고보습 스킨 크림 '크림 스킨'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크림을 스킨에 녹여, 스킨 하나만으로도 높은 보습력을 제공한다.

라네즈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출시 3주 만에 10만 개의 판매고를 올렸다. 보

통, 건조함이 심해질 수록 보습 단계를 늘리는데, 첫 단계부터 높은 보습력을 제공한 것이 인기를 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이오펜도 피부 진정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고보습 '모이스처 라인'을 새로

게 출시했다. 소프너, 에멀전, 크림 등 3종으로 구성된 이 라인

소프너, 에멀전, 크림 등으로 구성됐다. 모이스처 라인인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D-판테놀을 함유해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시켜 준다. 히아루론산, 참마 뿌리 추출물이 함유돼 피부를 탱탱하게 가꿀 수 있다.

뉴트로지나는 소량으로도 깊은 보습감을 전달하는 '노르웨이전 포물러 리미티드 에디션' 3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보디라인 에멀전과 핸드크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3가지 디자인과 색상으로 출시됐다.

◆'보습 바이블' 베스트셀러는?

매년 겨울철이면 수많은 신제품들이 출시되지만 베스트셀러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쓰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크림', 록시땅의

'시어버터 풋크림', 디올의 '어딕트 립 글로우' 등이 대표적이다.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 크림'은 피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자 제품의 핵심 성분인 '세라미드'를 함유한 고보습 크림이다.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겨울철 필수템'으로 자리매김한 이 제품은 지난해 효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록시땅의 '시어버터 풋크림'은 시어버터가 풍부하게 함유돼 촉촉한 보습감을 자랑하는 풋크림이다. 주요 성분인 시어버터 15%와 라벤더 에센셜 오일, 글리세린, 민트, 아르니카 추출물이 함유돼 있다. 150ml의 대용량으로 겨울철 내내 사용할 수 있다.

디올의 '어딕트 립 글로우'는 전 세계적으로 3초에 1개씩 판매되며 '국민 립밤'으로 등극했다. 망고 버터 추출물이 풍부하게 함유된 포물러로 24시간 최적의 수분감을 지속시켜주는 제품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KT는 CJ CGV와 스마트 영화관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실이 극장으로... '스마트영화관' 만든다

KT-CJ CGV ICT기반 업무협약

거실과 영화관 경계가 무너지는 전망이다. KT가 CJ CGV와 손을 맞잡으면서다.

KT는 5일 CJ CGV와 '마케팅 제휴 확대 및 ICT 기반의 스마트 영화관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콘텐츠를 공동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영화관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독립 영화와 게임, 스포츠 등 올레tv 콘텐츠를 IPTV와 극장에서

도 즐길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한다. 오는 12월 열리는 '2018 KPMA' 생중계가 첫 걸음이 될 예정이다.

스마트 영화관 구현에도 힘을 합친다. KT가 ICT 역량을, CJ CGV가 공간 구현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사는 정보 격차 해소와 문화 생활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극장이 없는 지역에 KT '5G 찾아가는 영화관'과 CGV '토토의 작업실'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김재용 기자 juk@

"11월이니까 하나하나 챙겨줄게" 올리브영, '11' 프로모션

인기상품 11% 할인·1+1 이벤트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은 오는 11일까지 '11월이니까 하나하나 챙겨줄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유통업계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11월을 맞아 숫자 '11'을 활용한 행사를 기획했다.

인기 제품을 원플러스원(1+1)으로 판매하거나 11% 할인하는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에 언어유료로 재미를 더했다. 이번 11월 행사에서는 클린 향수 30ml와 웨이크메이크 컬러젤퀴드라이너를 원플러스원(1+1)으로 판매하며, 유세린, 라로슈포제, 클로란 등 일부 브랜드의 전



품목을 11%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에이프릴스킨 매직스노우 쿠션,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2O, 에이바자르 퍼펙트 브리리프팅 프리미엄 마스크 등 인기 상품을 11% 할인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국내외 대규모 쇼핑 행사가 펼쳐지는 11월을 맞아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취업 어렵다지만... 10명 중 3명 '면접 노쇼'

잡코리아, 취업준비생 1213명 설문
 불참 이유 "회사 평가 좋지 않아서"

극심한 청년취업난 속에서도 사전 연락도 없이 지원했던 기업의 면접에 불참하는 이른바 '면접 노쇼(No-Show)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잡코리아가 올해 면접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1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생 10명 중 3명 꼴인 26.9%가 '지원했던 기업으로부터 면접통보를 받고서도 사전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면접 노쇼는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지원자(29.0%)가 비정규직 지원자(21.8%)보다 더 많았다.

면접에 불참했던 이유는 '면접 전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연봉, 복지 등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회사 면접 일정과 겹쳐서' 불참했다는 응답도 27.5%로 비교적 많았다.

이외에 '문지마 입사지원으로 그 회사 입사 의사가 별로 없어서(11.3%)', '면접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받아서(11.0%)', '아차피 면접을 봐도 떨어질 것 같아서(6.7%)', '건강상의 이유 등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5.5%)', '그냥 이유 없이 모든 게 귀찮아져서(2.4%)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사전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했던 기업(복수응답)으로는 △중소기업이 응답률 70.3%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대기업

(14.1%)와 △공기업 및 공공기관(8.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면접 노쇼 횟수는 △1회가 54.1%로 가장 많았으며, △2회(30.6%) △3회(8.9%) 등의 순이었다.

한편, 면접 노쇼 경험이 있는 취업생 46.5%는 면접에 불참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회했던 이유로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의지박약이라고 느껴져서(27.6%) △포기하고 봤던 다른 기업 면접들에서 불합격해서(27.0%) △실전 면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19.7%) △알고 보니 괜찮은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17.8%) △동종업계 기업에 입사지원 시 평판이 안 좋을 것 같아서(7.2%)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hys@

관광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인증 획득

한국관광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관광공사는 지난 5일 원주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과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 내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을 위해 2016년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지난해 4월에 국내로 도입됐다.

이번 인증은 한국관광공사의 기관 내부 주요인 파악 및 부패방지 개선 계획, 내부 관리 프로세스, 반부패 방침 관련 정책 등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관광공사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추진 TF를 구성, 부서별 잠재 부패이슈를 도출하고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 개선목표를 수립하는 등 부패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마인드



지난 5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에서 개최된 인증서 수여식.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왼쪽),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와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향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 '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해 '아시아 뷰티를 선도하는 혁신'이라는 주제의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는 중국 상무부와 상하이

정부 주최로 개최되는 대형 국제 박람회다.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30개국 3000여 개 기업과 약 15만 명의 바이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중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헤라, 러 등 5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3D프린팅 기술을 응용한 맞춤형 마스크 및 세계 최초의 쿠션 개발 스토리 등을 통해 아시아의 지혜와 혁신적인 기술이 어우러진 '아시아 뷰티'의 정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비전 아래 여성, 문화, 자연생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소개한다.

/김민서 기자